東亞日報

英國의 露國承認 — 優越한 그의 政治能力

一

英國에 勞働黨內閣이 成立된지 未幾에 倫敦電報는 英國의 勞農露國承認을 傳한다 回顧컨대 世界未曾有의 大戰爭이 아직 終了되기 前에 北極의 하늘을 炎炎히 그을리던 革命의 火는 勞農露國이라는 世界最初의 共產國家를 露出하엿다 世界列强의 瞳孔은 이 新出의 怪物을 向하야 集中되엿스며 또 하나의 例外도 업시 資本主義的 經濟系統우에 基礎를 둔 列强의 眼中에는 다시 疑訝할 餘地도 업시 이것이 世界國家의 一個公敵으로 비취엿다 그에 接觸함은 마치 黑死病患者에게 接觸함과 가치 危險한 行動이라고 思惟하엿스며 또 그것이 當然한 見解라고 하엿다

二

英政府에서도 最初에는 이에 對하야 極度의 反對를 試하엿다 或은 『알항겔스크』에 遠征軍을 派하며 或은 露國內部의 反革命軍을 援助도 하여보앗고 或은 赤衛軍과 戰端을 開始한 波蘭도 援助하엿다 이와 가치 하야 露國의 赤化를 防止코자 許多한 努力을 費하얏스나 勞農露國의 秩序는 날로 整頓되며 基礎는 날로 鞏固의 度를 加하야 儼然北歐의 一大勢力을 形成하얏다 더욱이 그네의 最惡하던 公敵인 獨逸이 이에 加擔하야 『랍파로』의 露獨通商條約을 締結하는 때에 彼等資本國家의 焦慮는 實로 非常한 者이 잇섯스며 따라서 그네의 態度에는 一大動搖를 示하얏다 더욱이 英政府의 胸底에는 勞農政府承認의 意向이 分明히 萌動하얏다

三

彼 『로이드·쪼지』가 실여하는 佛國을 說破하야 먼저 『제노아』會議를 열고 거듭 海牙會議를 열게된 動機는 實로 這邊에 잇슴을 看取할수 잇다 勞農露國倒壞는 이미 不可能의 事實이 分明하며 그러하여서 對露國交를 永久히 斷切함은 自國의 穀倉과 重要한 商品販路를 一時에 喪失하는 關係上 英國의 經濟狀態가 또한 이를 不許하는 바이라 이 進退維谷의 難關에 處한 英政府의 當局者는 『제노아』會議나 海牙會議가 當初부터 無謀에 갓가운 計劃인줄을 自覺하면서도 主催하지 아니할수 업는데 잇다 그리고 前後二次의 會議는 理想과 가치 全然失敗에 歸하얏스나 이 失敗에 歸한 二次會議에 依하야 또한 各國의 經驗을 어든 英國의 上下는 現代經濟組織의 國際的連帶關係를 切實히 意識하는 同時에 對露關係의 復舊가 一時라도 遲緩할 必要를 痛感하게 되엇던 것이다

四

그러나 其間에는 一大矛盾이 潛在하엿다 卽 經濟生活의 國際的連帶關係는 元來 極度로 發達된 資本主義의 產物이나 그 同一한 資本主義는 共產主義와 서로 容納지 못하는 關係이다 다시 말하면 英國의 經濟事情은 資本主義의 發達로 因하야 對露關係를 斷切하고는 恢復이 困難한 實情에 잇스면서도 그 資本主義를 擁護하는 政府에서는 容易히 共產國家를 承認할수 업는 道理에 一大矛盾이 잇스며 그 矛盾이 아말로 英國의 勞農露國承認을 于今 遲延케한 原因이다

五

그러나 英國勞働階級만은 最初부터 이와 反對의 態度를 示하얏다 前年 『제노아』會議前에 伯林에서 開催된 三派(第二, 第三, 維納)國際團體會議에 參加한 英國勞働黨은 이미 그 當時에 『露國革命을 援助하고 各國의 對露國交를 承認할 것』을 主張하던 바이로다 … 그 根本狀態에 對하야 그 順調와 그 順調를 招來하는 英國民의 政治能力에 對하야는 實로 贊歎을 不惜하는 바이다 …

英露諸懸案의 解決 — 英國의 露國承認公文內容

英國外務省은 勞農露國承認의 公文을 發表하얏는데 英國은 右公文에 勞農露國의 權限에 對하야 全露國領土에 對하야 勞農當局이 事實上의 統治者임으로 承認한다고 斷言하고 戰爭前의 諸條約의 整理, 經濟的要諸의 解決等을 各한 諸懸案을 有한 代表者를 倫敦에 派遣할 事를 露國에 勸告하고 莫斯科駐在英國代表『호지슨』氏를 代理大使에 任命하얏더라(倫敦一日發)

豫備協約起草要求

英國政府는 勞農露國에 通牒을 發하야 全權을 가진 代表者를 速히 英國에 派遣하야 現存諸條約의 相互要求의 解決, 露國의 信用回復及宣傳問題等을 討議하고 懸案中의 諸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야 完全한 條約의 豫備協約을 起草할 事를 要求하엿더라(倫敦一日發)

獨失業者四百萬

半官的報道에 依하면 獨逸의 失業者는 全獨四百萬에 達하얏다더라(伯林一日發)

윌손氏恢復無望

『윌손』氏의 主治醫『그레-손』博士는 一日午前十一時에 左와 如한 發表를 하엿더라 『윌손』氏는 今에 衰弱이 極에 達하야 到底히 恢復을 期하기 難하다 大槪人事不省中에 此世上을 別하리라(華盛頓一日發)

依然睡眠狀態

『윌손』氏는 睡眠에서 醒할 때에 心氣가 爽快하야 稍히 心地가 조흔듯하야 滋養物若干을 攝取하엿는데 主治醫『그레-손』博士는 麻醉藥을 注射하야 『윌손』氏는 再次睡眠에 入하엿더라(華盛頓一日發)

레닌氏의 後繼者 — 뤼-코후氏로 決定乎

合同通信에서 聞한바에 依하면 『알렉산드르, 이와노위치, 뤼-코후』氏는 『레닌』氏의 後繼로 二日中에 勞農全露委員長으로 選擧될 터이라더라(莫斯科二日發)

白軍殘黨蜂起

黑龍江督軍公署에서 總司令部에 達한 報告에 據하면 勞農露國은 『레-닌』氏의 逝去後 統一을 缺하야 黑龍州에 散在한 白軍의 殘黨은 『레-닌』逝去를 機會로 農民을 煽動하야 擾亂을 起하야 旣히 七八個所는 動亂의 巷으로 化하야 電信電話는 切斷되고 鐵道는 破壞된 狀態라는데 中國々境을 犯하는 者는 武器를 押收하고 目下中國監獄에 收容中인 者가 百餘名에 達하얏더라(東京電)

赤化宣傳取締令 — 北京政府對奉天省廳通電

北京司法部에서 奉天省總公所에 達한 赤化宣傳에 關한 取締命令은 大要左와 如하더라(奉天二日發)

一, 無政府主義를 宣傳하는 者는 二等有期徒刑에 處하며 右에 共鳴하는 者도 亦同함

二, 無政府主義宣傳을 目的으로 暴動하는 者는 一等有期徒刑에 處함

三, 金錢을 與하야 宣傳을 식히는 者는 三等有期徒刑에 處함

四, 前三條의 犯罪에 對하야 發覺以前에 自首한 者는 一等을 減함

五, 無條約國人의 犯罪도 前各項을 適用할 事

陳軍의 士氣不振 — 陳炯明計劃의 大失敗

客正月을 期하야 廣東을 回收코자 하던 陳炯明의 計畫은 遂히 失敗에 歸하엿는데 其原因은 彈藥缺乏과 近年에 稀少한 寒氣로 因하야 陳軍의 士氣가 不振함이라더라(廣東二日發)

建國政府設立도 延期 — 國民大會의 決議

國民大會의 決議에 依한 建國政府設立도 經濟統一과 北伐이 行不可能으로 因하야 一時延期되엿더라(廣東二日發)

護憲各派의 大懇親會

第二憲政擁護白票大懇親會는 二日正午부터 上野精養軒에 開會하엿스나 天候의 不良으로 來會者가 僅히 三百餘名이엇는데 加藤總裁及犬養翁은 遂히 參會치 안코 加藤政之助氏가 開會의 辭를 述하고 管原傳氏를 座長에 薦하야 別項의 決議를 하고 高橋, 濱口, 尾崎其他有志가 各自其熱辯을 吐하야 相當한 氣勢를 擧하고 午後一時食堂에 入하야 永井, 佐々木, 大谷其他의 諸氏가 熱辯을 揮한 後 二時半에 散會하얏더라(東京電)

決議

憲政의 大義를 辨치 못하는 淸浦內閣은 不法한 解散을 行하야 更히 謬妄을 敢하엿다 吾人은 極力此의 倒壞를 圖함과 共히 此를 支持하는 政黨의 絕滅을 期함

今後의 政界分野 — 最後는 政, 革聯繫 憲, 政本이 接近乎

三浦子의 主催로 三派首領會合이 開催되자 三浦子는 一, 三派聯合內閣을 組織할 事 二, 閣員의 數는 三派勢力에 按分比例로 配當할 事라고 慰安하니 三黨首는 言下에 容認하야 玆에 第二護憲運動을 開始하얏는데 後日에 至하야 尾崎行雄氏가 參加하야 氏는 一人으로도 多數를 占하는 政黨이 政權을 執하고 第二, 第三黨에 對하야는 順次交代의 約을 結하자고 發議하니 三黨首가 又此說에 贊同하고 劈頭에 淸浦內閣倒潰에 全力을 注하기로 되얏는데 此에 依하야 選擧戰에 臨하면 互히 相讓하야 最後의 勝을 期하게 될터이요 最後는 多年의 關係上 政革이 聯繫하고 憲政會는 孤立할 現象을 呈할터이나 總選擧結果는 政友本黨과 憲政會가 接近되리라더라 … 徐々히 三派聯合의 破壞에 努力할 듯하더라(東京二日發)

今年實行豫算 — 十三餘億圓內容

議會解散의 結果 大藏省에서는 直時大正十三年度實行豫算의 編成에 着手하엿는데 右豫算의 總額은 結局第四十八議會에 提出한 十三年度豫算十四億九百五十萬四千圓에서 四千五百萬圓을 減少하야 十三億六七千萬圓으로 決定되엿더라(東京電)

外米輸入數量 — 新規分八圓七, 八十錢

民間의 外米買付數는 最近增加하야 全國을 通하야 約八萬噸에 達하얏는데 目下買付價額은 西貢蘭貢共히 神戶着價額八圓七, 八十錢이나 一方政府所有의 外國米는 京濱間에서 賣出價額九圓三十五錢假量이 된다(東京電)

日公債大崩落 — 新公債發行說

倫敦株式市場에 在한 五步利附日本公債는 一日八十三磅으로 低落되얏는데 此는 一月三十日에 比較하면 半磅假量의 低落으로 此의 原因은 倫敦에서 日本의 新公債가 發行될듯한 所以이라 市場의 傳說에 依하면 新公債의 利子는 六步, 賣出價格은 九十圓이 되리라더라(倫敦一日發)

外債募集至難 — 紐育과 倫敦

倫敦에서 行하는 中인 外債募集의 交涉은 無論秘密을 嚴守하는 中이나 確聞하면 圓滿히 進行되지 못하는 듯하니 若日本金融界에서 交涉이 迅速히 進行하는 줄 思하면 此는 大한 失望을 未免할지라 昨今日本의 經濟界, 政治界의 形勢라던지 英國政界의 形勢는 此를 妨害하는 中으로 當地一般金融界에서는 第二回震災의 報道가 極히 惡影響을 與하야 外債交涉關係者로 하야금 持久的適當한 理由를 作케하며 從하야 個々의 條件等에 就하야도 日本의 當局을 更히 不利한 地에 立케하는 것이오 更히 米國側의 主張하는 바는 應募할 것은 僅히 五六千萬弗에 不過하는데 應募條件은 日本側의 主張과 相當한 距離가 有하야 日本의 豫想과 如히 有利한 條件으로는 多額의 外債를 發行하기가 不能할 듯하더라(倫敦一日發)

懇親後의 大騷擾 — 上野

精養軒에서 열닌 白票大懇親會는 宴後에 自由演壇에 移하야 地方靑年團의 演說中 勞働同志會의 須賀喜三郎氏가 護憲運動은 三派의 手에 掌握되야 吾等無產者를 參加케 안이함은 고약한 즛이라고 하얏슴으로 會場은 總立하야 騷動하고 數名의 壯漢은 須賀를 毆打하얏슴으로 須賀는 顏面이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負傷하엿는데 主催者側의 仲裁로 僅히 鎭靜되엿더라(東京電)

選擧取締監視

淸浦內閣下에 行할 總選擧는 果然組閣의 第一義인 公平한 選擧를 施行할與否가 疑問임으로 今回三派及上院幸無四派의 有志를 糾合하야 選擧取締를 監視하기로 하얏더라(東京電)

監視方法 — 別項選擧取締

監視에 對하야는 露骨的干涉은 勿論이요 一, 運動員에 對한 壓迫 二, 有權者의 誘導及宣傳 三, 地方官의 行爲 四, 檢事局의 態度 五, 開票立會官吏의 言動等에 對하야 非違가 有할 때의 具體的事實을 蒐集하고자 近々有志의 會合을 開하리라더라(東京電)

政憲이 提携하야 普選直行運動乎

二日白票懇親會後 憲政의 武內總務는 政友會의 橫田總務와 會見하야 各種의 意見을 交換한 結果 政友會도 從來의 行動을 捨하고 普選의 卽時斷行을 行할 意嚮인듯하야 近々聲明할 意를 表하얏더라(東京電)

三派破壞에 努力

研究會에서는 解散當日부터 對時局策을 講하더니 研究會는 將來政友本黨과 握手를 計策함이 明하다 …

鮮銀整理資金 六千五百萬圓

鮮銀의 整理資金融通額에 對하야 過般來大藏, 日銀及總督府의 間에 種々交涉中이더니 今回大藏, 日銀의 融通額이 決定되얏슴으로 大藏省에서는 總督府及鮮銀에 對하야 此에 基한 整理案을 作製하야 提出하기로 되얏는데 其融通額은 大藏省預金部로부터 五千萬圓(年五分)인데 日銀은 更히 千五百萬圓을 限度로 하야 最低日步로 鮮銀事業資金을 貸付하기로 되얏는데 大藏省에서는 右資金을 融通하는 條件으로 하야 配當을 三分減하야 五分으로할 態度를 決定하얏더라(東京電)

堅實努力할뿐 — 野中新鮮銀總裁談

突然히 命令을 受하엿슴으로 如何하다고 論키 難하나 鮮銀은 新聞紙上에서도 본바와 가치 極히 重大한 時機라 整理案은 大藏省에서 起草하야 … 指示된 바가 업서 其內容은 全然不明이나 結末이 되는 때로 具體化될지며 移管問題도 … 大藏省과의 關係가 密接함으로 … 今日에 受命하엿슴으로 銀行의 內容等은 詳細히 알지 못하나 予는 今二十五年이나 官吏生活을 繼續하엿슴으로 比較的民間에 關係는 深密하엿더니 今回는 純然히 實業界에 入하엿슴으로 諸君의 後援을 得하야 可及的堅實히 努力하고자 思惟하노라々(東京電)

東拓移管問題 — 姑未具體化

東洋拓殖株式會社의 移管說에 對하야 大藏省當局은 曰 大藏省은 金融機關改善調查會에서 今日의 東拓으로 하여금 拓殖事業을 他會社에 移讓케하고 各地及海外에 잇는 不動產擔保의 貸付를 하야 日本內地의 勸銀과 同樣의 行動을 하게하야 特殊金融機關으로 함이 如何한가 하는 意見이 有하엿슴으로 何等此의 具體化는 업고 그대로 今日에 及하엿스며 東拓도 亦現在의 組織을 變更하야 金融專門으로 함은 贊成치 안이하는 … 近々內閣에서 經濟調查會를 設立하고 產業及貿易의 振興과 金融機關의 改善等에 對하야 調查를 하게 되엿슴으로 東拓問題도 提案되야 如何間解決되리라더라

賓黑鐵道問題

哈爾賓黑河間의 賓黑鐵道敷設은 元來露淸銀行手中에 잇섯던바 中國이 露國의 動亂에 乘하야 回收하고자 하엿스나 今에 敷設치 못하야 勞農政府는 此를 露中合辦으로 하고자 露中交涉에 提案하고자 하는 意見을 抱하얏스나 張作霖氏는 此에 反對하야 어대지 中國의 獨立으로 敷設코 露中交涉에서 解決하고자 한다더라(奉天電)

第六回 國際勞働會議

第六回國際勞働會議는 六月十五日부터 約三週間 『제네바』에서 開催하기로 決定하얏는데 日本에서는 勞働代表를 選定할 때마다 政府對勞働組合의 紛爭이 起하야 世界의 嗤笑를 受하더니 政府도 漸次大勢에 支配되야 勞働組合을 承認하야 組合으로부터 代表者를 選定할 方針이라 今日에 在하야는 政局이 安定치 아니하야 勞働階級에 對하야 同情의 心에 惡化를 與하여서는 아니될 것은 勿論이요 日本勞働總同盟에서는 來二月十日부터 全國大會를 開催함에 當하야 國際勞働會議에 對하야 本質的承認의 聲明書를 發하고자 하는 機運이 漸々濃厚하게 되얏슴으로 政府의 態度와 調和하야 勞働代表의 選定도 順調로 解決될 曙光이 보히는데 國際勞働日本代表는 鈴木文治氏가 任命될듯하다더라(東京電)

督學府宿舍는 十四年度로 延期 — 新規學校는 分校로 開校

東京의 留學生寄宿舍新設은 議會解散으로 因하야 自然消滅이 되얏는바 荻原學務局長은 말하되 現在東京麴町區中六番町에 잇는 總督府朝鮮學生督學府는 震災로 因하야 宿舍를 燒失하엿슴으로 其後假建築으로써 應急施設을 行하고 爲先朝鮮留學生을 宿泊케 하얏는데 …

同督學部는 十三年度豫算에 二十萬圓을 計上하고 … 建設할 計劃이던바 議會解散으로 因하야 自然消滅이 되야 一年間施設을 延期할 수 밧게 업게 되엿다 …

總督府編纂의 新教書三十五種 — 小田編輯課長談

總督府教科書調查委員會에서 協定한 十三年度使用新教科書編纂方法에 基하야 來四月新學期부터 使用할 新編纂의 教科書는 三十五種인바 其中 普通學校程度 二十二種 高等普通學校程度 十種 實業學校程度 三種 이며 十三年度中에는 編纂되지 못하고 當分間國定教科書를 使用할 教科書는 … 十二年度限하야 使用치 아니하게 되얏다 …

國定教科 …

新規事業 …

文化貢獻者에 遺德表彰

今次攝政宮御慶禮擧行에 際하야 朝鮮의 文化, 風敎에 貢獻한 諸氏에게 … 故人에게 祭粢料一封式을 下賜하얏다더라 …

消息

▲金平氏(駐日獨大使) …

▲趙東植氏(中樞院參議) …

橫說竪說

◇朝鮮에 稅務機關의 獨立을 實施하면 … 「自然增加되리라」한다 … 「必然增加」… 다도무서운 빗이 만타

◇不遠에 農會令이라는 것을 發布하야 各種農業團體의 團體를 劃一的으로 統一하리라 한다 從來此種團體의 成績이 不良한 原因은 劃一的으로 統一되지 못한 理由에 잇는것인가 … 微收를 法令으로 保障하는 것이나 고치지고 말것이다

◇大藏省當局者의 意見이라고 新聞의 傳하는 바를 보면 東拓을 兩分하야 事業部와 金融部를 分離하는 것도, 조흐리라 한다 「兩分하든지 朝鮮에서 行하는 『東印度商會式行動』만 一日이라도 速히 撤去하야라」

自由鐘

投稿 歡迎

投稿規定 一行十四字計算으로 六十行以內에 限함▲紙上匿名은 無妨하나 本社外지 氏名住所를 記入하되 皮封에는 『自由鐘原稿』라 朱書함을 要함

正言子에게

◇正言子! 여보 老兄은 果然 입에다지못할말을잘도하엿습니다 老兄의 말이 『老兄네 祖上이 地主가 될때에 얼마나 凶惡한 즛을 만이하엿겟소』하니 老兄이 小作人이면 時에 老兄네 祖上은 얼마나 惡鬼를 만이하엿스며 얼마나 仁慈한 사람인줄 아시오 …

◇또 『老兄집이 兩班이면 벼슬낫치나하면서 國庫金을 竊取햇거나 兩班以下이면 高利貸金으로 貧民의 土地를 쌔아섯겟다』하니 老兄은 地主를 꼭 不正利得한 사람으로 말을하는구려! 그 들도 地主가된 經路를 보면 … 은 돈으로 土地를 삿스니까 그 代價로 至今은 安逸한 生活을 하는 것이 아니요? …

◇이것이 所有物이 너의 … 富者가 업스면 … 地主와 小作人이 … 서로 理解하여 … 남의 손에 … 사시요(牡丹峯人)

◇東亞漫畫 投稿歡迎 薄謝贈呈

『흥― 다시 끌너노어도 亦是一般이겟지!』

너희들은무엇을어덧느냐 (128)

廉想涉 (하편) 五一二

그이튼날 일요일에도 마리아는 그림자도 보이지 안엇다 오후에 예배당에서 마리아를 보앗느냐고 슐몃이 무러보니 어문수더러 … 마리아의 편지를 다시한번 읽어보앗다 …

「… 그러나 다시는 변할수업는 한일문 시시각각으로 뇌이고 … 그보다도 이세상에 자긔의 것이 … 」

中等諸學校入學試驗準備用良書 — 無師自通算學全書

金元祐 先生 編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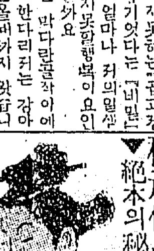
實用國語作文

金演培 先生 編述 …

總販賣元 朝鮮圖書株式會社 … 分賣所 東昌書屋

急告 苗木販賣廣告 — 小林園

젊은사람, 獨身의 人은 不可讀 — 柳亭種彥作 戀のぬれ鳥 — 絕本의 秘書



特價金壹圓四拾錢 … 標準美人寫眞一葉 無代添附 發行所 愛文社書房

西洋料理 大西館 — 京城府 …

별표고무靴 — 半個年保證 — 京城府並木町 京城織紐株式會社 電話本局一一八八番 振替京城四一一七番

ClibPDF - www.fastio.com

◇모한련습하는광경 우편은유도、아래편은검도 (긔사참조)

發展되는京城 家屋新築의傾向

대개는여시주거디를중심으로 현저히집이느는곳은동대문밧

장래건설될대경성(大京城)의준비로경성부의 시가가 점점밧그로확장되여가는 사실은 해마다 새로짓는가옥(家屋)수효와그위치로도 알수잇는데 이에경성부재무당국자의 이야기를 듯건대 읜의 지여 노흔가옥을 문허버리고그자리에 새로짓는 집도 적지아니하나대개는 새로운땅을 개척하야짓는모양인데 집을짓는 위치드조선사람과 일본사람의 구별이현주하야 다각각 현재주거디의방향을바더 조선사람은 동대문밧숭인동(崇仁洞)이나서대문밧현저동(峴底洞)을중심으로집을짓고 일본사람은초음뎡(初音町)광희뎡(光熙町)이나룡산(龍山)중에도원뎡(元町)이나 한강통(漢江通)을중심으로짓는모양이며가옥의대부분은주택(住宅)이오뎜포(店舖)의신축은별로업스며다소간

신축이잇

다하더라도의치는본뎡(本町)이나 황금뎡(黃金町)방면으로 조선인측거리에는대개중축(增築)뿐이라는데동대문밧숭인동은경성으로한신축중축의가옥수가를듯건대 주래난이계속하는재작년에는 신축사백여칫채 중축일백여순여것채의 총건평이 륙천여평이나되얏고 작년에는 신축삼백마흔일곱채 증축 구십채의총건평이 오천여평이나되얏는데 이중에서 한가지주목할것은 이중이나 벽돌집가튼것은

거의전부

가일본인의소유로 재작년에는 한채작년중에는열여섯채나지엇스며 또는 조선인측가옥은 재작년보다 작년에는 부쩍줄어드는대신으로 일본인측가옥은 해마다 삼사십호씩 늘어가는사실인데 이는방금 학교등여러가지 시설이전차등부로옴기는싸닭에일본사람들은 벌서장래의발뎐을 짐작하고 그리로옴마가는것을 알수잇는데 이는더욱총독부가 북부로옴기는통에 북부에 다시손을대이는 일인이만흔것을 보아도 분명한사실이라더라

伯林大學에 韓文科新設

독일류학생주선으로

우리의글과 말소래는 조직이완전하고 활용하기에편리하나 불행이나라의 운수의 부족한것으로써 그글씨지세상에 널리알게되지못한것은 우리의큰 유감이며 우리 리웃 중화민국(中華民國)이 지금으로부터십삼년에새로건설(建設)될써에당시대총통(大總統)으로잇든 원세개(袁世凱)씨는자긔나라의쓰는한문(漢文)이활용과및문화발전에크게방해가되는것을근심하야 민국(民國)이새로 조직되는때에 중국에서 쓰는글을 우리나라의글로써 쓰자는주장까지하엿섯다 그러나 망한나라의 글을쓸필요가업다하야 중지하고 지금에쓰는주음자모(註音字母)를붓와권하게 그뒤에연구하엿던바 근일에 독일 백림대학(獨逸伯林大學)안에 그곳에잇는우리유학생회(留學生會)의 주선과 힘으로써 한국어급문학(韓國語及文學)의 전문과(專門科)를설시하게되얏는데 그 류학생회에서는 크게 발권케하라고 힘쓰는중이라더라

小作權예인다고 百餘農民이騷擾

주재소당의중재로겨우무사

안악군동창포(安岳郡東倉浦)에서 진남포잇는 가등평태랑(加藤平太郞)의 농감노릇하든 송흥식(宋興植)의집에 지난이십구일 삼십일량일간 소작권예인다는 리유로 당디소작상조회원백여명이 모혀와서 폭동을하고 거하엿스나 미리이일을 짐작한 당디경찰창동포주재소의극력보호로 현장에서는 무사하엿스나 맛츰내 동주재소마당까지 달려가서는 도라가지아니함으로 동면면당과 동주재소당이 대표로 디주와 교섭하며 소작권을예이지안토록하겟다하야 돌리어 보내엿다더라(동창)

勞農會召集方法과 그회에서토의할문데

조선로농대회 주최단데총회(朝鮮勞農大會主催團體總會)에서는 오는사월오일 경성에서개최하게되엿다함은 긔보와갓거니와 그회에서 토의할문데는 각단데에서 데출한 토의문데를 토대(土臺)로 아래와가치 결뎡하엿스며 대회소집방법은 아래와갓더라

大會召集方法

一、場所 京城
二、時日 四月五日午前十時 (陰二月二日)
三、代表者 每團體二人以內
四、參加費 每團體三圓以上
五、參加資格 勞農團體로하되 本準備委員會에서審査決定
但參加樣式은本準備委員會로問議할事

共同討議問題

一、勞働運動과小作運動의共同戰線形成에關한件
가、勞働運動과小作運動의協同에對하야
나、現下의勞働及小作運動全局面에對하야
一、出稼勞働者及農民에關한件
一、無産青年運動에關한件
一、無産婦人問題에關한件
一、勞働者及貧農의生活、消費組合에關한件
一、衡平運動에關한件
一、勞農運動에對한紀念日에關한件
一、宗敎問題에關한件
一、東拓問題에關한件
一、民族問題에關한件
一、其他에關한件

勞働問題

一、各地勞働運動狀況調查報告
一、勞働運動의根本方針에關한件
一、勞働團體組織에關한件
一、勞働運動當面의諸問題에關한件
가、勞働賃金及勞働時間問題에對하야
나、衛生及其他에對하야
一、勞働者敎育에關한件
一、勞働者失業에關한件
一、婦人及少年勞働者에關한件
一、勞働者保護機關에關한件
一、罷業團體에關한件
一、勞働者宿泊所及勞働者食堂에關한件
一、外國人勞働者問題에關한件
一、其他에關한件

小作問題

一、各地小作運動狀況調查報告에關한件
一、小作運動根本方針에關한件
一、小作團體組織에關한件
一、小作運動當面의諸問題에關한件
가、小作權에對하야
나、小作料와小作條件에對하야
一、農民敎化에關한件
一、農業勞働者에關한件
一、農村副業及農事改良에關한件
一、郡農會에關한件
一、其他에關한件

學生會 內部組織革新

각부를두어더욱활동

조선학생회에서는 지난삼십일일 신임집행의원회에서 그회의일을 익층더확장하고 만사를민활히하기위하야 각부를두고 사무를 분담하얏는바 그내용은아래와갓다더라

執行委員長趙鏞淳、書記朴應燁、會計金浩燁、同康亨雨、編輯部主務李時雄外部員六人、社交部主務朱炳瑞外部員四人、體育部主務李貴興外部員四人

英國이露國承認

십년에버서이상이이러케되엿다나

◇영국이 엇그케 초하로人날아라사를승인하엿다 넘금과량반과 부자들을 내어쫏고 로동자와농부들이 회를모와 아라사를 다스린지육칠년── 달로 룩개년이 갓가와오도록 량반과부자의 나라인 영미국들은 이것을한나라로승인치아니하고 어서아라사도 녯날과가치 량반과 부자의나라가되기를 바라고 또여러가지로힘을썻다

◇아라사를 여러나라들이 한나라로승인해주지 아니하기때문에 정식으로 교제를할수도업고 자유로 장사를통할수도업서서 아라사는 큰곤난을당하엿것마는 아라사人백성들은 그수령이오지도자되는 레닌씨를 밋고따라서오늘날까지 참고견되어왓다 그리고큰소리하기를『그래도마츰내는 권세계를우리나라와가치 로동자와 농부의나라를만들고야말일』하엿다

◇일본도 작년에는 아라사를승인하느니마느니 말이만터니 영미국의눈치만보다가 그만영국한테 선수를쌧기엿다 영국에도 로동당정부가 생기자『우리도로동자들이니 로동자의나라를 승인하여야 한다』하야 내각이조직된지멧날이아니하야 먼저아라사를승인한것이다

◇아라사에서야남이승인해준다고별로깃버할것도업겟지마는 세계에 가장힘잇는영국이 아라사를승인한것은 세계가 그러케도죽일놈가치미워하던로동자와 농민의나라를승인한것이니 십년내에 세상이이러케도변한것이 놀납지아니한가

鐵血男兒를養成하자!

조선청년과무도의필요 더욱소년때부터힘쓰라

시내원동회문고등보통학교(徽文高普通學校)뒤에잇는 조선무도관(朝鮮武道館)에서는지난이일오후다섯시반에그무도관에서모한련습(冒寒練習)하든학생들에게

련습증서

를 수여하고특별두명에게 히정근(精勤)한학생에게는정근장(精勤狀)을수여하엿는데이번에 모한련습한학생은 금년겨울중 데일치운때삼주(三週)동안을택하야 매일새벽 다섯시부터 빌재히모히어 유도(柔道)와 검도(劍道)를련습하엿는바 일뎡한시간의조곰도 틀림업시 우량하게 련습을 맛치엇다한다 이에대하야 동관 사범강락원(姜樂元)씨는말하되『원래무도가조선에드러온지는 임의삼십여년이나 그동안여러가지풍상을겨거왓스나 일시는

매우침쇠

하엿스나 일천구백이십일년에 다시 지금협성학교(協成學校)의일실을비러서 조선무도관을 창립하고 하여오다가 협성학교가확장됨을 따라 그곳에도잇지못하고 일시로상에 방황하는비참한운명에잇섯스나 농지멧사람이자긔의가산을던져 삽히어겨우협착하나마현재목케도당을만드러놋코청년을모아가르치는중인데 현재이무도장에서무도를배호는청년이이백여명이다 장래도 청년이더욱이 방면에대하야 만히힘써야할것이올시다 사회에나서서 무슨로동을하게되든지 몸이튼튼치 못하고야무엇이되겟습닛가 그럼으로 엇던나라이든지 그나라의 성쇠를보자면 그나라

청년의원

긔를보고 청년의원긔는 오로지데육여하에잇습니다 향자귀보에 소개된중국왕정뎡(王正廷)씨도 조선사람에게먼저데육을말하지안앗습닛가 그외엇던외국사람이든지 조선사람은무긔력하다합니다 이러케무

사업이든지 감당하야 나갈무쇠가튼몸을 이루어야겟다 더욱이유도나 검도는단순한 비유뿐아니라 심신을수양하는데 극히필요한 력을 기르는데

어려서부터

이것을 배호면 장래큰도움이될터인데 되는것은 조선사람은 가뎡에서 이데육에 대한리해가 업는것이라 장래우리의 다음세상의주인이될소년이 만히와서 배호기를 바란다고하더라

感懷깁흔 大講演

평양에서 최남선씨의강연 청중일천오백명

지난일일오후칠시평양대성학우회(平壤大成學友會)에서는경성최남선(崔南善)씨를청하야평양텬도교회당(天道敎會堂)에서대강연회를 개최하얏는대 먼저대성학우회장김성업(會長金性業)씨의개회사와길진경(吉鎭敬)씨의독창이잇슨후 연사 최남선씨는『모란봉(牧丹峯)상에서서』라는 연뎨로약두시간동안이나 의미깁고 간절한강연을 하엿는데 처음십오륙년전평양에대성학교가잇슬때의 평양은 대성학교의 평양이엇다는말과 대성학교는 도산안선생(島山安先生)이정력을다하야 설립되얏든 것이라고 감구의 회포를말한후 지금안선생과 대성학교는 맛날수가업게 되얏스나 그남은정신을니어 대성학우회가 설립되고 그회에서 새로운 대성학교의 부활운동을하는것을볼때에 만강의 늣김을 금할수업다하얏다 그다음 평양에대하야고구려(高句麗)이래의 력사를말하고 사람에는 현재세력(顯在勢力)과잠세력(潛勢力)이 잇는데 서로다른것이아니라 잠세력도 비상한시긔를당하야 비상한진두(陣頭)에설때에는현재세력이되고 현재세력도 엇더한사고를맛나면 잠세력으로 된다한후 고구려이래 우대한세력을 가지고잇든 평양사람은 반다시그세력을 나타내일것이라고 웃음을맛쳣는데 일천오백여명 청중에게 비상한감동을주엇스며 근래평양에서처음잇는대강연이엇더라(평양)

哀愁에싸힌 宣統帝身邊

可憐한清室

쓸쓸한녯대궐속에 긔한에싸힌구신들 千萬圓에賣却되는清朝寶物

세상의일은 알수업는것이다 당초장백산(長白山)아래에서이러나중화전국을 통일하고 세상에하나밧게업고 그외는모다 오랑캐라고지목하고구미(歐米)에소위문명하다는나라 신사들도 모다오랑캐라하야 그대궐 아래에다가 삼배구고(三拜九叩)의례를식습업시행하게하든 중화민국(中華民國)의대왕이든청조황실(淸朝皇室)은그십삼대(十三代)되는 선통(宣統)의쎄인지금에이르러서아조

곤궁하고

비참한 경우에 이르럿다 이는청조가퇴위(退位)할때에민국정부(民國政府)에서 언약한일년에지출할은(銀)사백만량을 언약대로지출하지를아니하며 그세간사리는 근년에선통이어린터에도영단(英斷)으로 만히감하기는 하얏스나 그대궐안에놉고먹는 사람과 그사람들에게딸린 식구는 의연히멧만명이라고 하겟슴으로써 그에대한경비는 지출할길이업고 민국정부에서는 이사정을 알기도하나 그러나 자긔정부의 행정비도부족하야 파산을당할경우에 처하고관공리(公官吏)가각금가다가 동맹파공을 행하여도 미봉할도리가망연한터에 해가에 권청황실에대한경비를 지출할수가잇스랴 그

위엄만코

긔세가 등등하야상유(上諭)한장이면권국이모다하리를 굽히고 무슨일이 잇던지 거역하지못하든 그황실이 십여년뒤에 이와가치 조잔하게되야 행하게 부인네권안에는수직하는사람이 멧사람이왓다갓다할뿐이오 그에딸린환관궁속(宦官宮屬)들은 월급을밧지못하야 폐일날이업고날은치위에 마음대로 할수업스나 떠러진 옷이라도 몸을가림것이 변변치못하며 규모는 그대로큰터에

세간사리

용돈도 대일수가 업서서 그내부대신(內府大臣)이하의모든 직원들은발을동동구르고엇지할길이업다 정전(正殿)안에서정부이부인(正副二夫人)을다리고이와가튼 사정을친히눈으로보지아니하고지내는선통(宣統)도또한그다지못난 사람이아니라이밥이공녀(宮女)나시신(侍臣)의입든것처이구에각금각금 드린남베에는 눈물을프리고 한심한일을 한두번이 아니라 다섯번이나 되겟다한다 그배서근일에할수업시 한다못하야 그권에팔다가 남기어누엇든 고물(古物)서화(書畵)명화(名畵)보물(寶物)을또다시모아서외국사람에게팔아

이돈으로

쇠궁급한경비를쓰기로한다는데 그가와은권만원어치라하며 그물건은 전청조(前淸)가나라를세운뒤 십삼대(十三代)동안에권국의힘을다하야모아서 집히감추어 두엇든 년의세권지보물 삼으라 하얏든 것이라한다 이유명하고 위엄만튼애신각라(愛新覺羅)씨의집이 오날와서 이와가치 비참하고곤궁하게될줄몽매에누가생각하얏스랴 이것을풍진빈 지금에 모리 세력만코강한집이나 나라이리도내일엇지될지모르겟지모를것이다(상해)

沒人情한冷血醫師

죽게단말을듯고도가지안아서 두사람을죽게한발안장라의사

수원군장안면 독뎡리에사는 우승환의처김성화(水原郡長安面篤亭里禹性煥妻金性華)(二三)는 지난일월이십이일에아해를낫는중 어린아해의 팔이먼저나옴으로 그집안사람들은 허둥지둥하며 우성환은 급히발안장터에잇는발안의원의사

라원용씨

(發安醫院羅元容氏)를차저보고 시급한사정을말하며왕진을청하엿더니 라의사는내가감긔긔운이좀잇서갈수업스니그대로곳가서어린아해를눌러서쓰내라하고거드름만부리고 재삼애걸하야도 듯지아니함으로 우씨는의생김부경씨와 면당신명우씨를 차저보고 그사정을말한즉 김부경씨와 신명우씨가 라의사를차저보고 간곡히말햇스나 역시쾌락지안코 거절함으로 우씨는 칠십리나되는 수원읍내동화의원 의사 권태동(東華醫院權泰東)씨를 다려다가수술을하라하얏스나 벌서 때가

느젓슴으

로 산모와어린아해는 그잇튼날되는 이십삼일에죽엇다는데 일반듯느니는 의사의 몰인정하고랭혹함을 한히책망하며 비난이 심하든차에 라씨는수일전에 남양의원(南陽醫院)으로 뎐근이 되얏다더라(수원)

獰毒한强盜刺人

자는사람을찔너창자가나와 잡힌범인은한동리사람이다

지난일월이십구일오전두시경에 춘천군사내면신촌리 김태순(春川郡史內面新村里金泰順)의집에 강도한명이칼을들고 드러와 김태순의가슴을깔고올라안저칼로가슴을거누며

돈백원을

내노라고 위협함으로 김태순은항거하야 내집에돈백원은업스나 칠십원은잇스니 나를노와주면 돈을주겟다고 행동이매우위험한지라 김태순은 죽을힘을다하야 그강도를 찌미넘기는바람에 그강도는칼로 김태순의배를찔너서 창자가 나오게하엿다 이가치 야단을치는바람에 김태순의부인이 놀래깨여나와 불을켜놋코 강도에게 달려드러 김태순을 구원하려한즉 그강도가 한손으로김태순의 창자를붓들고 한손으로 부인을 대적하다가 손에드럿던 칼을부인이쌔아서

내여버리

고문밧그로 뛰여나와 소래를크게질너 동리사람을쌔이어 모이는바람에 그강도는즉시 도망한지라 이급보를 드른그면사창리(史倉里)주재소

모루히네 密賣犯

두명이잡히고 출장한경찰서원에게 장품오천원어치압수

권라북도를 중심으로 아편을파라먹으며 북천증이랑(北川增二郞)이란가人자일홈을가진 정상신조(井上信造)외일명은일권에의손에데포되얏는데 그자는 경성에서 출장한 령광경찰서원 서대문뎡(西大門町) 일백십이번디에 거주하고 또한명은 경성병목뎡(並木町) 십번디에거주하는 궁성희팔랑(宮城喜八郞)이란자로 군산부개복동현계국(群山府開福洞)의손을것처어 김두일(金斗日)이란자가 모루히네를 가지고다니는것을데포취조하야 단서가 나가지고 이번에 출장데포한것인데 범인이데포됨동시에 약품과 장물 오천여원어치가 압수되엿다더라

淸州地震

이일오후에 경미한디진

이일오후 일곱시경에 충청북도 청주군(忠北淸州郡) 일대에는 가비야운 디진이 잇섯서 문과 온돌이 흔들니엇는데 별피해는 업섯고 인심은잠시소란하얏스나 곳 굿치엇더라(청주지국)

關西水災同情

본사에온것

작년여름 관서수재에대하야 각디방에서 아래와가치 동정금을 모아 본사에위탁하엿더라

高興郡邑內耶蘇敎會金十八圓六十錢、高興地方青年會金十七圓、高興邑靑年會金九圓四十錢 光州水災救濟會金五百圓

小窃盜頻頻

음력세말이되야

가선하야젓다 고양군연희면아현리(高陽郡延禧面阿峴里)이십칠번디 송요원(宋堯源)(二○)은 재작일일 오후두시경에 시내종로이뎡목 홍제당(洪濟堂)위방에드러가 시가오원가량의 환약을 훔쳐도주하다가 즉시종로서원에게 잡히엇스며 시내관훈동(寬勳洞)일백구십칠번디에도 재작일일 오후두시에 윤웅이(尹應伊)(二○)가 드러가서 입나무세곡을 훔치어가지고 도주하다가 역시종로서원에게 잡히엇다더라

不平

投稿歡迎 不平은實例에限함

남촌서지가리가

경성뎐긔주식회사에서는 와사가 듣그마쓰다니던구둔데 공한다고광고는패장히하고조선사람들 중심으로한 종로혜장소가 잇스면서 그곳에서는 팔지를안으니 그것참차 남촌우척으로 사러가야하나요(불평자)

지금은팔니다

밤시는 준비가못되야서 종로혜장소에서 팔지못하얏스나 요사히는팔기를 시작하얏스니 너무 꾸짓지마시기 바랍니다 (종로혜장소원의말)

嘉尙한日巡査

박봉에서학비그부담

개천군상류면 갈산주재소에 재근하는 일인순사 갑주이랑씨는 작년십일월분에 그곳주막에서 음식업영업을하는 녀인 김화삼(金和三)의집에 우연히들어안젓다가 열두살된 김화삼의아들 김만동을보고 돈이업서 공부하지 아니함을 불상히녀이어 자긔에서 학비를부담하야 보통학교에 통학하게하얏다더라

通信英語普及會

시내관사동에생겻다

변이연구에 만흔몬력을하는 리귀홍(李貴洪)씨는 우리에게 영어독습과 관이업슴을개탄하야 시내관사동이백사십구번디에 조선통신영어보급회(朝鮮通信英語普及會)를두고 조선문으로 매월한번씩 영어강의록을발행하리라는데 자세한것은 그회로 문의하면 알리라더라

─모임─

◇종교명년회에서는금사일 오후시반에『宗敎與宣傳』이란 데목으로토론회를열터이라는데 연사는 아래와갓다고
可便 崔秉煥 金顯洙
否便 李德鳳 金鍾浩
▲금사일 오후일곱시에 시내인사동(仁寺洞)에잇는 중앙청년회관에서는 그사무소안에서 임원회(任員會)를 연다는데 임원외에는 한사람도빠지지말고 참여하여주기를 바란다고

◇휴지롱 ▲평남덕천군(平南德川郡)에서는 지난이십팔일에 그곳학교평의원회를 개최하엿는데 ▲출석한평의원은 여덟사람인데 회의에 자문사항인 본년도학교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업료개정의사건을 토론케 되엿슨데 ▲개회로부터 폐회하기까지 한마듸도 그냥다문채로 안젓다가 도라간평의원이 여섯사람이나 된다든가 ▲또한가지 우수운일은 그학교예산안을 보건데 지에쓸경비가 일만칠천여원에 ▲두학교중학교에는 한달에 이백여원식 내지못하는 경비로서 ▲덕천보통학교에는 한달에 이백여원식밧는 일본량반교당을 둔것이다 ▲당국자가 엇지하면 정치의시설은 디방상황을 참작하며서잘하노라하면서 이따위짓은무슨짓인가 ▲당국자여 정신이잇거든 이가치돈만히밧는교당은 경비가푼푼한 도회디학교로 면직식히라함은 덕천사람의권하는말

▲取消 一月三十一日附本面衣島記事中朴應植이가朴公振과協力하얏다함은事實이틀렷고當時朴應植은强硬하게和解에反對한外닭으로日人도합수업시爲同들이모르게所有權을返還하얏든것임

仁川期米

仁川府後場 (二日)

二錢이止하고 當地交此에仲하는보다十九錢高한八圓十一錢이라 節○一錢의軟步를傳하니氣勢變하야步調되니 始作十三圓十錢을最高로 當地氣勢稍高하엿스나 軟軍의防低로節々高潮되며最高五十五錢 戰으로前止보다十文高하게三十錢으로 當步後阪地又高步의傳 二圓六十五錢에初付하니六十一錢인低價로止하다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米豆餘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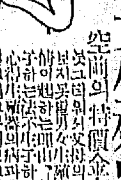
오래동안問題이든日本政界도豫想보다하로일느게 解散되고말것다 ▲比하야 ...

時代日報支分局募集

天下의想望이政切한時代日報는來三月中으로써刊行될豫定입니다
必要한地方에는支分局을設置할려인바今二月十五日까지그志願書를接受하겟습니다
詳細한事項은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二番地本社로問議하시오

◇當二月七日(木曜)부터三日間
松竹蒲田特作 大喜劇 안되엿다
實寫 『고—몬』週報 全一卷
米國마—로社大作品 收物大活劇 國境의猛獅 全五卷
▲伊太利칼부로社名作 悲劇 愚의處女 全八卷
瀨戶의風景 全一卷
▲獨逸에—메루아—會社新作品
▲米國개도로社特作品 人情劇
外社特約 團成社 電話光化門九九九

不愉快한 기름이나는사람 電話光化門九六三 李秉祚



醫學研究會編 圖解研究 男女生殖器全書
發行所 市川書院出版部

▲理髮機具販賣大擴張▲
外而刀其他附屬五品無代進呈
大特價提供
各種金物商 大工道具 君元村筆吉商會

朝鮮唯一 趙膏藥 됴고약
瘇症仙藥
京城府 天一靈神丸本舖 天一藥房

六○六號 代用內服藥
梅毒新藥 ヨートカリ丸
販賣所 博愛堂

▲午前場阪地[illegible]七月二十四錢에始하야此를最低로三節以後四十錢臺에서七八節은五十錢臺로止際에는더욱强想[illegible]하여九十[illegible] ▲第一節 當은不成이나中은前[illegible]止보다僅히一文强한三十一圓八十二錢으로先限은阪地後場初付畢當은三十八圓臺에進하야前場[illegible]阪地二[illegible]하되當地人氣는買便에集中되니七十錢에始하야七十七錢外지高步로上勢될際阪地二節八圓과三[illegible]되얏슬[illegible]但只六十錢에二口有할[illegible]錢으로止하다 ▲第四節 當은亦是不成에中은九十錢에一口有할뿐先限은阪地四節○四錢이나五節弱하다하야[illegible]七圓九十六錢이오五十[illegible]하야六十二錢이有할뿐五十二錢外지軟步로更히五十九錢에止 ▲第六節 當不成에中은一圓八十九錢이오先限은大阪止價八圓[illegible]差二十五丁이오阪[illegible]開稍五百四十八丁이러라

電話 長九一五番 長九一六番

[illegible]會되니저은波瀾으로目前은上勢의步調이다 ▲지난달中旬부터今新市는周閑의모든材料를消化[illegible]解散과大受渡에作하는勢으로因[illegible]下勢의前提로이야말로天井이되아理想的으로[illegible]리라한다 ▲及其間에는[illegible]一派의所信은新市第一期에三百丁을[illegible]

黃海道評議會

（八日）

於之屯及長箭宮屯에關하야李忠健外五人이提出한데對하야當局의說明은如左

總督府方針에驛屯土를人民에게賣下함은조흐나此土地는廣大한즉水利契或은人民에게責任을줄수업소

▲李忠健君 一千五百餘人의承認을受하고多大한費用을投하야實地測量을終한後五六萬圓의預算을立하야事業設計를作製하야道及總督府의認可를日夜企待中인데今般道地方費에計上하엿다함은不適當한즉地方住民에게拂下하야水利를完成케함을懇願하노라不足한地方費로經營하면不完全할뿐만아니라人民에게賣下하면四百餘名의生命이此에在한즉人民을爲하야賣下함이엇더할가

▲番外 水利契는不完全함으로잘進行할수업스며以前에는本府에서管理함으로不便한點이有하얏스나地方費로管理하게되면敏速하게되야大端한利가有할줄思하노라

議長은採決한바多數로可決하다

延白郡敎育費에充用할財源의件 申宗均外七人이提出한바에對하야當局은說明하다本來南大池는歷史가有한池의管理의水源不充分으로因하야人民의害가有하든바今春은充分히하려하며一部分을學校費에充用한다함은損害이며國有는本府에서處理함

▲申宗均君 南大池貯水池를灌漑利者에게下付하야水利契로하야管理케할預定이라는風說이有하니用地區域西方의現狀을見하면年々土砂의滯積에因하야地面이枯渇하야貯水地로利用할餘地가업고自然廢地가되며面積이約二十町步인데其地味가極히肥沃하야住民等은多年冒耕盜農하는弊害이甚多하나官廳에서는다만禁止取締等에苦心할뿐이오何等의良策을講究치아니함은何故며同地總面積中貯水池가될區域만을下付하고其殘部前記荒蕪地二十町步는當局에移管하야其收入으로써郡敎育費에充用케함이엇더할가

議長은採決한바多數로可決하다

水產學校設立에關한件을庶若涵外六人이提出한바에對하야議長은採決한바多數로可決하다

私立講習所에關한件을金泳濬外十人이提出한바土屋君은講習所許可에對하야說明하다處理를迅速히하려하며講習所의一定한規例가有한즉時間과課目은變更할수업소

▲金泳濬君 當局은잘알터인즉採決하야주기를願하노라

議長은採決한바多數로可決하다

山林緣故權者에關한件을洪性禧外十四人이提出하다

▲洪性禧君 朝鮮人民이가장不平을부르지즘은林野의件이올시다元來부터돈을주고買한것이他人에게貸付되얏다는것을들을때에엇지나不平을늣기지안켓소溫突에避치못할柴草地를造林을爲하야他人에게貸付하얏스니造林을朝鮮人에게敎하야우리로하야금살게할것이아닌가人民에게주지안으면日鮮融和에關係가有할줄思하노라他人이造林을한다면山主는害를及케할터인즉結局將來는一大紛爭이起할터이라當局은잘考慮하야朝鮮人에게주게할것을願하며若法令에依하야不能이라하면法도人民을本位로한것인즉人民을爲하야할것이오人民에害가업는것은國有로할것인줄로思하노라이것을圓滿히解決치아니하면不平이起할터인즉當局은深究할것이며法은姑舍하고人情上으로보드래도多數人의것을뺏아서個人에게貸付하는것은相當치안은것이며當局은威信이떠러진다할지라도多數人을爲하야一個人의威信이떠러질은人民을爲하야當然한事가안인가本道內에此에對한同感者가多할줄로思하며殷栗民은現在죽을苦痛을當하는中인즉當局은民有로하게하야주고또緣故林은貸付制로하지말고本人의所有로하야주게方法을取하기를願하노라

▲番外 當局과人民의생각과는다른즉말하려하노라朝鮮山林은窮谷絶峽外에는다人民의것이라하니朝鮮山林은曾往法規에私有로認定한일이업소刑法大典에草木을베는者는笞杖八度라는것이有한즉民有가아닌事가確實치아니한가人民間에서賣買時에法律上確認은無하고習慣上에그리된것인즉不知하것고緣故者를定할時에도韓國時代의事情을調査하야한것이며林野에依하야充分히調査한後決定하라하오面長이調査하고知事가檢閱한바에不服申立을提出하면林野局에서可決하오調査後所有緣故로되지안한것은國有로된것이며日鮮人을不顧하고造林케하려하오年々伐草하는墓地가有하다고所有者라고는할수업소造林者에게貸付한것을所有者의關係로取消할수는업소

▲洪性禧君 刑法大典이幾年間外지施行되엿슨가

▲番外 幾年間이나施行된것은不知하노라

▲洪性禧君 伐草하면볼기를맛는다하니朝鮮人의다리는정한곳이업슬것이며數個年前에도賣買한것이有한즉此를보면私有로認定할수잇지안은가刑法大典은말할것이업소오레된法을施行하면外隆熙四年에地稅屆한것도私有로認定치안함은如何히된것인가當局者는朝鮮에온지不過十餘年인즉잘알지못할것이외다本人이賣買도하얏고賣買한文書는至今에登記와如하고兩方이相違한時는官에서相當히處罰하엿슨則確實한私有가아닌가前부터墓地는子々孫々이伐草하야왓스며官에서도保護하얏스니그것을보면私有가아닌가數百年間오든朝鮮法인데何故로國有라하는가

▲番外 朝鮮總督府에서調査한것인則잘하엿다고생각하며山의賣買한것으로民有라하나國有도內容으로賣買할수가잇슨則此를보면私有라하지못할것이며法令이잘못施行된結果賣買된것이며地積屆는民有로認定하면提出하라하야調査한後相當히整理할것인즉提出하엿다고民有라할수업소

▲洪性禧君 나무가업스면國有라하고樹木이有하면私有라하니不公平하지아니한가年々이所有者가伐草하야왓슨즉其人의것이아닌가殷栗郡事件에對하야人民은査定時에圓滿히解決을하야多大한希望을가지고잇는바圓滿히못되면騷擾가起할지도未知인즉當局은深量하야民怨이無케함을바라오

議長은十五分休憩를宣言하다

會場內는이問題에對하야意見이紛紛하얏스나結局은本件을撤回하다

繼續開會

▲鄭健裕君 緣故者의貸付料는지모든手續을便利케하도록함을願하며本件을撤回하오

▲洪性禧君 他件은無事히進行하고本件을撤回하게되얏슴은此問題를重하다고思하며本件을撤回하오

議長의祝辭가有한後閉會하다

（終了）（海州）

LA DONG-A ILBO.

SEOULO, KOREUJO, LUNDO, FEB. 4, 1914.

ESPERANTISMO.

Chiuj senmalicvolaj homoj devis realizi, ke la internacionala malamikeco, kiu kauzis chiujn abomineblajhojn troveblajn en la historio homarana, jam atingis al sia tago de Jugho. Shainas nekompreneble al la vekighintaj konsciencoj ke kiel la homaro toleris ghin ghis tiuj chi tagoj.

Por kio la malamikeco inter fremduloj? diversaj popoloj? kiuj havas sendube la samajn korojn por senti la samajn ghojojn kaj bedawrojn; kiuj dividas inter si la saman homaranamon. Por nenio! escepte por malfelichigi unu la aliajn kaj sin mem.

Shainos tre strange al tiuj kiuj ne provis preni al si la laboron por pripensi tiun chi tre gravan problemon, kiam oni diros al ili ke, la chefa kauzo de malfelichagho sin trovas en la nekredeble simpla fakto ke la diversaj popoloj ne povis kompreni unu la alian pro la obstinaj baroj de lingvoj. Se oni povus doni al chiuj anoj de homaro unu saman lingvon, ili povus tuj perfekte kompreni ke la ghis nun fremduloj estas ne pli ol iliaj gebratoj kaj geamikoj, chirkaupremante unu la alian sur siaj brestoj kaj ekkreante, "Ni malvivis! Pardonu al mi!"

Precipe ni koreoj, kiuj suferas kaj hontighas igite lerni kaj uzi la lingvon de venkintoj tute kontrawvole, devas senti pli forte ol la aliaj memstarantaj popoloj la neceson de internacia lingvo. Tial estas la motivo por publikigi unu artikolon sur nia papero chiulunde.

Fine ni espremas profundan senton de danko al nia samlaboristo "La Chosun Ilpo", por ghia donado de esperanta leciono. Vivu Esperantismo! Unighu homaranoj!

에스페란토欄

世界語의必要

平壤에서

一記者

쌘々한酬酌

지난번 平壤府協議會席上에서 鮮于某라는議員은 府費로써 府協議員의 智識向上機關을 設置하야달나고滔々히說明하얏는데 그理由는府協議員이 府政에對한議見이 薄弱하고 豫算과如한것도 겨우常識判斷을 할뿐이오 잘알수가업다함이엇다 그러면 그間에自己가 府協議員이되야서 可決한모든것은 잘알지를못하야 되는대로 하얏는데 새로히協議員工夫를 좀식혀주어야만 잘하겟다는말과갓다할것이다 府政에對하야 識見이 업는것을가지고 府民의代議者가되얏다함은 確實히 府民을欺罔한것인대 良心의苛責을受하야 如此한議論을 提唱하얏다하면 그純直한告白을 同情한다할것이나 府民이負擔하는 府經費를가지고 이처새삼스럽게 工夫를하겟다는것은 좀 쌘々한酬酌이다 工夫를하라면 혼자가만히하든지 그럿치안으면찰아리 알지못할府協議員을 暫間 辭免하얏다가 工夫를하야서 잘안뒤에 府協議員이다시되는것이엇던가府廳은協議員養成所가아니다

견듸지못할일!

平壤商業會議所는 地位 名譽 勢力 爭奪戰의 總本源地요 野心遂行交換條件의 利用處이다 그리하야 늘싸홈만하며 서로唾罵하기로 일삼고 今日에이派黨 明日에저派黨、分合과諂諛와軋轢으로써 名利圖謀에汲々한修羅場이다 싸[illegible]리가터지거나 關係는업지만은 그싸홈통에생기는費用(賦課金)은商工業者에게 負擔하라하니 가 견듸지못할일이다

今日은陰曆除夕

아즉까지朝鮮사람大部分이직히는 陰曆名節은明日이다 오늘 癸亥마즈막날을當하야 舊를憫함에無限한感慨를禁키難한同時에 將次오는新年을迎하야 우리의定할바計劃은무엇인가 過去의모든壓迫에서버서날만한우리의勇氣가甲子正月一日로부터 蘇生되기를바란다

五山校財團은

着々進行

定州五山學校財團法人期成會에서表準額三十萬圓을募集하는中各方面有志의만흔寄附로거의完成되얏다함은累報하얏거니와去三十日下午一時에同會總會를同校室內에開하고經過事項을報告하는中募集된金額이二十五萬餘圓에達하얏다最高로寄附한人과金額別은如左

定州金起鴻(土地로)	四萬圓
宜川吳致殷(土地로)	三萬圓
鐵山吳熙源(土地로)	三萬圓
博川李鏡毅(土地로)	一萬五千圓
鐵山吳弼殷(土地로)	約一萬圓
義州韓正奎現金	五千圓
定州趙始淵(土地로)	五千圓
定州表節嗣(土地로)	一萬五千圓

以下는五千圓으로부터最低百圓外지인데三十萬圓인表準額에不足되는五萬圓은某々有志間交涉中에잇슴으로不遠落着되리라하며財團法人申請手續은設立者會에一任하기로하고同六時에閉會하얏고當日夜九時同校學生同窓會에서期成會員全部와設立者諸氏를同校集合室에招待하야學生側代表者數人의慰勞辭와唱歌바요린等이잇슨後會員側의答辭가잇섯고繼續하야同十時半頃에設立者會를開하야申請手續을作成하고學校의機關組織에就하야는評議員三十人理事七人監査三人을두게하얏는데五百圓以上寄附한者로任員될資格을주게하고來新學期부터五山高等普通學校로昇格하야學生을募集하도록하리라더라(定州)

仁川活動寫眞

九日內里耶蘇敎堂內에셔

仁川新花水里耶蘇敎內에잇는主日學校에서는同校의經費를엇고자活動寫眞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當局의交涉을맛치엇슴으로來九日(土曜)午後七時부터內里敎堂에서內里、牛角里兩主日學校와兩新聞社後援으로同大會를開催한다는데寫眞은「크리스맛스感想」『米國兒童敎育法』「天國의一部」「人生의一平生」等으로부터宗敎의哲理를보이는寫眞外數種의滋味잇는種類가잇다는대料金은大人二十錢小兒十錢이라더라(仁川)

德川普校增設

官民一致協力으로

平南德川郡은八千五百餘戶에達하는地方임에不拘하고普通學校는僅히二個所에不過함으로一般은普校의增設을渴望中이더니今般面長會議에서郡守孔濚氏로부터普校增設의必要를力說하자會集하엿던各面長은大히贊同하야同郡日下面에一校를設置키로하고此의經費는郡民이配當負擔키로하엿는데內定된各面의配當額은如左

德川面	七百圓
日下面	四千圓
德安面	一千圓
豊德面	七百圓
太極面	五百圓
城陽面	六百圓
蠶爲面	三百圓

青里公普新設

面長과面民의熱誠

慶北尙州郡靑里面에는面內에相當한敎育機關이無함으로每年數千兒童은就學의路를엇지못하야彷徨케됨을同面長金在璿氏는恒時遺憾으로生覺하든바再昨年에至하야面民有志와協議한結果敎育契를組織하고面民全部를入契케하야財產程度를標準삼아義務的으로每年春秋에出資한金額이萬餘圓의基本金을積立케된바이에靑里講習會를設하야兒童數百名을敎育식혀오든바今年度에至하야는學務當局에서도그面長以下面民의敎育熱이膨脹됨에感하얏든지公普로變更케되얏다는데目下建物을增築中이라더라(尙州)

咸平學校評議

全南咸平郡公立普通學校評議員會는去三十一日부터兩日間咸平郡廳會議室에서議長吳郡守司會下에本年度豫算編成에關하야協議한바豫算內容은如左

歲入

經常部

一金五萬四千五百七十六圓

內譯

第一款賦課金	二七、四四〇圓
第二款使用料及手數料	七、七〇六圓
第三款財產收入	七九五圓
第四款雜收入	八四圓
第五款繰越金	五、五〇〇圓
第六款補助金	四、九一六圓
第七款寄附金	六、五〇〇圓
第八款過年度收入	一三五圓
第九款財產繰入	一、五〇〇圓

合計五萬四千五百七十六圓

歲出

經常部

一金三萬八百七十六圓

內譯

第一款評議會費	三四〇圓
第二款咸平普校費	一〇、七三四圓
第三款羅山普校費	五、二六七圓
第四款桂川普校費	四、五六一圓
第五款鶴橋普校費	四、二〇五圓
第六款月也普校費	二、一一九圓
第七款基本造成費	二〇圓
第八款財產管理費	一九四圓
第九款國庫納金	一〇三圓
第十款學校費取扱費	二、〇三三圓
第十一款雜支出	三〇〇圓
第十二款豫備費	一、〇〇〇圓

臨時部

一金二萬三千七百圓

內譯

第一款學校建築費	二二、二〇〇圓
第二款設備費	一、五〇〇圓

合計五萬四千七百七十六圓

（咸平）

木寺公普有望

全南谷城郡木寺洞面은山間僻地에處하야兒童의敎育機關이업슴을遺憾으로생각하든바該面內有志趙重九李晃燮柳南北李泉燮諸氏와面長李相赫氏는協心盡力한結果로六千餘圓의寄附金을募集하얏다는데來三月頃부터는木寺洞公立普通學校의工事에着手하게됨으로面內人士들은氏의誠意에對하야讚賀不已한다더라(順天)

載寧生牛賣買況

昨年一月부터十二月末日外지載寧各市場에서賣買된生牛는其頭數가四千八百十五頭요此價格은二十六萬五千二百七十五圓의巨額에達한바此를月別로示하면左와如하더라

月別	生牛數	價格
一月	三三〇	一〇、八〇三圓
二月	一二七	七、五八二
三月	一一五	一四、三七〇
四月	二二五	一四、七二六
五月	二二三	二七、七九六
六月	六六五	四一、三九六
七月	四〇三	二〇、八五三
八月	八一七	四三、七一三
九月	六〇八	三三、八一二
十月	二三〇	一〇、二二五
十一月	三〇二	一二、九四五
十二月	三八二	一六、三四一
計	四、八一五	二六五、二七五

（載寧）

大田敎堂新築

定州郡大田面耶蘇敎會堂은距今十八年前에建設되얏스나其間만흔風霜으로아홉번이나移轉하든中康元善崔公鷹兩氏의熱心經營으로僅々히維持하다가지난己未年에도新築하려다가그해事變으로失敗하엿든바지난日曜日禮拜時에同面雲山洞金蔣喆氏夫人崔蔣萬氏가率先하야自己의손에씻든銀指環을버서내임으로敎徒男女老少의義捐이踏至하게되야當日에募集된金額이三百餘圓에達하얏다하며今年봄에는敎堂을一新히建築하게되리라더라(定州)

龍川學校評議

一月廿八、九兩日間을亘하야龍川郡廳을場所로한龍川學校評議會는그會웃헤同評議員의發起로郡民大會를陰正月十五日開催케되얏다는데此는從來當局의三面一校制를二面一校又는一面一校라도實現키可能한龍川民衆的要求는畢竟當局도底止치못할것을表示코저하는擧事이라더라(龍岩浦)

特別牛市開催

平南孟山德川寧遠三郡畜產組合의聯合主催로來十四日부터二日間孟山郡北倉市에서特別大牛市場을開催한다는데同市場開催期間中同市場에서畜牛其他家畜을放賣하는者의게는一々히景品券을交付하야抽籤施賞한다는바其賞品은如左하며一般牛商의多數參集하기를希望한다더라

一等	百圓	每日一本式
二等	五圓	每日五本式
三等	三圓	每日十本式

四等五等은適當히景品을進呈

（德川）

聖經學院修了

咸鏡南道北靑郡北靑面耶蘇敎長老會主催聖經學院은豫定과如히一月三日에開學하얏는데學生은男女合百三十餘名의多數에達하야同二十九日外지學科를終하고翌日午後八時에當地禮拜堂內에서修了式을擧行하얏다더라(北靑)

民大南原郡部

民大南原地方部에서去二十七日午後二時南原天道敎々區室內에서執行委員會를開催하고委員長副委員長兩氏는形便에依하야辭職한바更히委員長副委員長總務를改選한後五十餘人의委員으로하야금面支部組織의日割과面負擔額을決議하엿다는데委員氏名과面支部組織日割은如左

執行委員長林震燮副委員長姜在洪總務姜在倫

德果面六日　大山面六日
寶節面八日　周生面七日
巳梅面七日　帶江面六日
山東面六日　金池面七日
王峙面八日　黑松面八日
豆洞面六日　阿英面八日
東面　七日　水旨面七日
山內面八日　朱川面八日
二白面七日　雲峰面七日

（南原）

九萬青年夜學

咸南咸興郡連浦面九萬里는本是新敎育이라면反對하는弊端이不無하든바波動되는時代의思潮와高度에達하는向學熱의影響을바다昨年一月부터當地青年諸氏의主催로農村改良과青年夜學을目的하야九萬里青年夜學會를組織하여가지고낫이면勞働밤이면工夫하자는青年及兒童을募集하야熱心敎育하든바村內一般學父兄은此에共鳴後援하야會況이日復進展한다더라(咸興)

乾繭場新築平

价川郡에서는地方蠶業家를爲하야平南道廳의補助를바다約五千圓豫算으로相當한乾繭場을新築하고一般蠶業從事者에게便利를圖謀하리라는데此建物位置는郡廳所在地로하지안코同郡外西面軍隅里에新築하기로內定되얏다는바現在生產으로보던지其他여러가지로便利한點을보면邑內가中央인것은事實일뿐아니라自古로邑內에集散하야賣買되든바萬一軍隅里에乾繭場이新築되면當邑內經濟市場은閉市치못할것은明瞭한同時에乾繭場으로因하야現在邑內와附近一帶人士의게얼만한利害關係가有한데本郡守朴聖奎氏는말하되今番乾繭場位置를軍隅里에新築하기로內定된것은道의方針이오且一般이該處位置가必要하다고歡迎하는바이니가할수업는일이며軍隅里는將來發展이有望한곳이오또現在外西面蠶業從事者가小數에不過하나該處에蠶業을普及하야將次繭大市場을建設할計劃이라云々(价川)

南原聯合運動

全北南原郡南原面에서去二十六日消防隊、警察署、青年團、青年會、四團體의聯合으로南原警察署構內에서運動會를盛大히擧行하얏다고(南原)

●李應龍氏寄附 价川郡外西面軍隅里學校組合의基本資產에補林할山野가無한것을同組合評議員森本氏는甚히遺憾으로思하고李應龍氏에게此事情을말한바同氏는自己所有인附近에在한林野約三町步(時價五百圓)를快諾寄附하얏다고(价川)

◇青年其他集會◇

▲「케틀포」通常會 는一月三十一日午後七時內里永化學校에開會되얏는데決議된事項은다음과갓다고

一、스켓트大會를來十日에開催할것

一、會報를今月부터刊行할것

一、文藝의新事業으로音樂、文藝兩部長에게一任하야不遠間事業에着手케할것

一、理髮師講習會를開催할지며이에對하야는林灼柒、明鍾錫兩氏에게一任하기로하고其他事項을決議後閉會하얏다고(仁川)

▲江華靑年會討論 江華邑靑年會에서는去二十九日午後七時부터同敎堂內에討論會를開한다는데問題는「完全한人格을引誘하는者는自覺이냐?敎鞭이냐?」

可便 黃正柱、金光洙、方道植

否便 朴殷永、印元鳳、黃龍錫

▲仁川局招待宴 仁川郵便局에서는來七、八兩日午前十時부터市內電話加入者八百餘名을招待하야記念撮影과茶菓饗應이잇다고(仁川)

▲勉勵靑年雄辯會 平壤市外坎林里禮拜堂에서는去月廿五日午後七時同敎會勉勵靑年會의主催로懸賞雄辯會를開催하얏는데入賞된演士는如左

一等(半島改革은敎育에在함) 金元濟

二等(吾人의活路와靑年의責任) 金永顯

三等(무엇을爲하야살스고) 金京杜

（平壤）

▲長昌靑年總會 平壤長昌門外耶蘇敎靑年會에서는去月二十日定期總會를開催하고任員改選을行하얏는데그氏名은如左

會長楊東郁 副會長金永穆 總務金永譜 書記李明淏鄭容吉 會計朴道三 智育部長劉晋永 傳道部長李明煥 運動部長李鳩徵 社交部長張永彩(平壤)

◇地方人事消息◇

▲今井氏(鮮銀支店長)는府內各新聞社關係者를去三十一日午後六時東洋軒에招請하야晚餐宴이잇섯다고(仁川)

許生傳

(65)

長白山人

새 나 라 (一〇)

허생은 말을 이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려겻하겨고나니 조선팔도도 가위쑥밧이되엿십니다 게다가 그동안 륙년동안 흉년은들고 조정에는 간신들만모혀서 밤낫 싸홈만하고 각처에도적이봉긔하야 만민이 가위도탄중에잇슴니다」하고 길게한숨을 쉬엿슴니다

이말을듯고 로인은 매우근심되는드시 주름살한얼굴을 찡흐리고 젓해모혀안젓든 젊은사람들도 본국이 편안치아니하다는 말을듯고 모도얼굴에 근심된빗을보입니다

허생은 모든사람들이 슯허하는빗을보고 심히마음에 불안하야 말끗을 돌리며

「엇더케 임란에 일본으로 오시게되엿는지 그말슴을 들려주셧스면조켓습니다」한즉 로인는 밧안과퇴人마루와 마당에 모혀잇는자손들을 도라보며

「나도이곳에와서 낫스닛가자세히알지는못하오나선친께서하시는말슴을 들어서알뿐이지오」하고정다운 녯일을 생각하는드시 눈을감고 무엇을생각하기도하고 즉둘러안즌자손들을 돌아보기도하더니 자손들을 향하야

『어버가너희들에게 이야기를한지도 벌서여려해가되엇다 그동안에 새로난아희들도 잇고 그때에는 철업든것이 지금은철이난아희들도 잇스니 한번더니야기를하는것도 조켓다마츰 본국으로서오신 손님도우리가 이곳에와살게되엇는지를 듯고 십허하시나 오늘은내가 아버지께 드른말슴을다시한번하리라」하고 [illegible]

「나도 나이팔십이 넘어구십이 갓가왓스니 세상일도 다니저버렷지마는 [illegible]

일본사람이온때 지금 뒤에서사람들이 치를죽이랑으로 따라오니 어듸다가치를 숨기셔서목숨만 살려줍시오」하고눈물을흘니가며 애걸을하더랍니다

그경혼보시고 조모님께서는 이번 싸홈에죽은 맛아드님의원수를 생각하고 분이나셔서오내맛아들을죽인것도네로고나잘만낫다놈라잘만낫다내아들의원수를 오늘이야 갑핫다하고 소리를지르시고 나무시가지 단효시던낫을들고 메드섯다합니다 그런즉 그일본사람은 그만 랑망이되엇든지 당에숙엄어지며

「아이구 어머니나한번뵈옵고 죽엇스면」하고는영영소리를 내어움엇다합니다

質疑應答

一、質疑는日常生活에關係잇는事에限함

一、應答은隨時本欄으로써發表함

一、質疑는郵便에限하야必히朱書로「質疑係」라明記함을要함

【問】나는오는新學期에、吉林方面에가서「苦學」하고저하옵는데、할수잇스릿가?그리고、苦學을아니하고「自費」로工夫하랴면、一年에學費가얼마나듭니가?좀가르켜주시오ー(奉化一問生)

【答】吉林에、相當한學校가업슴니다。멀니故國을써나「留學」을간다면、그래相當한學校에가서、工夫를하여야하지안켓습니가?그러나「質問者」가、期於히그곳으로工夫를간다면、簡單히말슴하오리다。吉林에가서、苦學은到底히할수가업스며、自費로工夫를하라면、一年에적어도、三百圓가량은、드려야하겟습니다。(一記者)

賞給拾圓

左記事項을正解하는人에게金拾圓進呈

正解者多數時는[illegible]

一、最近朝鮮에第一洋靴原料를廉買하는洋靴店이 何處何店이뇨

一、最近朝鮮에第一價廉하고品質조흔洋靴販賣店이 何處何店이뇨

一、最近朝鮮에第一薄利多賣로販路가最廣한洋靴店은 何處何店이뇨

◎解答時는必히平和堂洋靴部의內容도調査한後에하시요

平和堂洋靴

◎注文時는[illegible]

洋靴商 合資會社 平和堂洋靴部

[illegible]

定價表

短靴	八圓八十錢	六圓三十錢
編上靴	九圓八十錢	七圓三十錢
淺ゴム	九圓八十錢	七圓三十錢
深ゴム	十一圓卅錢	八圓八十錢

絕對安心

[illegible]

朝鮮銀行

總裁 美濃部俊吉

資本金 八千萬圓

[illegible]

支店出張所 東京 大阪 神戶 下關 [illegible] 平壤 [illegible] 大連 奉天 [illegible] 紐育 倫敦 其他內外[illegible]

廢墟以後

創刊臨時號

朝鮮文人會同人執筆（月刊）

內容目次

◇廢墟의祭壇…………吳相淳
◇니즐수업는사람들…………廉想涉
◇후작부인…………洪命熹
◇봄날에가만히부른노래…………朱耀翰
◇그이…………崔南善
◇芥子씨알…………卞榮魯
◇그립은흘긴눈…………玄鎭健
◇個性의微笑…………金炯元
◇海岸…………金億
◇驚異…………趙明熙
◇虛无魂의獨言…………吳相淳
◇文章講話(附錄)…………鄭寅普
◇筆誅—◇海外文藝消息·其他百

五十餘頁의大文字滿載

一月一日發行·定價金四拾錢(郵稅二錢)

總發賣所 京城公平洞六六 中央書林 (振替京城七四五二)

發行所 同上 廢墟以後社

月曜欄

豆滿江洪水지든해

俞政兼

벼가여덜살되든해봄에우리집에서는四五代나리살던鍾城邑을떠나거기서西으로十里가량되는고개라는곳으로移徙하야갓다邑內와달나、듬성々々널니어잇는집마을이라든지豆滿江건너便에구경바위라는險하고異常스럽게생긴山이邑內서보는것보담매우크고明瞭하게보이는것이라든지女子들까지밧헤나와男子들과함께기음매는것이라든지가모다좁은邑內속에서만잘아나면밧기라고나가보지못한나의게는어느것이好奇心을니르지안는것이업섯다더군다나봄갓부게한것은우리집압동로얼마안되는솔나무森林속에서꾀꼬리、벅국새들이날어다니며우는것이엇다봄이온것을알니는明朗하고도아름다운꾀꼬리소래와神秘가득찬벅국새노래는左右에있는山谷에요란하게反響하야고요한村落氣分을도웨드리고잇섯다나는그쌔外지꾀꼬리、벅국새우는소래를들어본일이업섯다……

孤兒의노래

李瑞求

오래간만에 봄을잡으니 다만 머리만 묵업고 가슴만답답할뿐이다 하루밤만자면 正月初하로! 나에게는 아즉쓰지도 悲壓正月이 뜻이잇고 마음이걸니는것이다 ……

小說 吐血 (續)

曙海

……

新詩

處女의맘

京城 李盤月

남아지못하는 任務업는 맛등산에 한숨기 안집이술머슨薔薇花가 곱게도피며이다 입부기도하더이다 나는그고혼입술에 입맞추고 그줄기석거다가 冊床우花瓶에꼬저두고 언케든지 두고두고 사랑한다하면 누가나를시비하랴 알사람이 누가잇슬가요 그러나 아모도모르는 處女의 마음속의길히길히 감추인 불근옷을석것다하면 엄마나두려운 무지람이날것 가들에피인님자업는薔薇花가 處女의마음속에 피인꽃은 누구나향부로 걱그랴 덤비더이다 나는항복하고만는구나 그러나處女는네일홈아래 엇그러든 이내손에 귀운으로

生의讚美

大邱 朴明苗

살자! 살자! 忍從의뜻외지堪耐의뜻외지! 귀여히 살아보자 生의衝動은本然으로가진以上엔 살아야만할것이다 사람은말하더라 生은 虛々하고헛되고 그起原은無意味라……고 純客觀으로 意慾이分明치못한 宇宙를內省삼아 生의相을回想하면 허되게도虛々하게도보이리다 그러나야—人生의努力과意慾 그것을에라야 宇宙의理念과生의本相이 비로소낫하나는것이다 그는虛된假相을가첫스닛가…… 살자! 살자! 기름과쌈가오는때서 밥맛에자이는돌덩이와 忍從을外로比할맛치— 蒼浪의一葉舟갓혼 苦勞의試鍊場에서 살자! 살자! 귀여히살자 人間의生은不斷의創造! 過去는아모리모아도 未來는못된다 살아서創造해야한다 살아야宇宙의맘도 生의起原도理想도 實된生의歡喜도맛볼것이다 아야하겟다、사는대外지

薄利多賣主義도란도센最新式機械模様附(散賣價革命)

復興トランセンド萬年筆特價提供

製造所에서需用家에直接廉賣—都賣問屋과散賣店과—二個所利得을省함

▲도란센도 二十二號(大軸) 安全裝置잉크止式眞正十四金펜 (責任保證付) 에보나이도軸 軸徑五分八厘丸 市場價格七圓에것金現圖대로 大特價金參圓六十錢

▲도란센도 十三號 安全裝置잉크止式眞正十四金펜 (責任保證付) 에보나이도軸 軸徑三分八厘丸 市場價格四圓內外에것金現圖대로 大特價金貳圓拾錢

▲도란센도 二十三號 新裝置安全잉크止式(現今大流行新型) 에보나이트軸 軸徑三分八厘丸 市場價格五圓五拾錢內外의것金現圖대로 大特價貳圓八拾錢

▲도란센도 十七號 線出式正十四金펜(責任保證付) 에보나이트軸 市場價格七圓以上의것金現圖대로 大特價金參圓八十錢

▲도란센도 二十四號 綠出式眞正十四金펜(責任保證付) 婦人向의小形細軸綠出式으로又赤잉크用에도最適品이오 市場價格四圓以上에것金現圖대로 型式及內部等十七號同樣 (에보나이도軸) 桐螺子付軸 徑三分二厘丸 大特價金貳圓參十錢

誓約 注文에關한注意 萬年筆保存注意

東京市神田區表神保町 廣業社製作所

分類 書籍目錄 無代進呈 大阪市東區內淡路町 大阪博文堂

年利六割 東京青山北町七の四二 金声社

廣告도記事 廣告도重要한一種記事이라注意하야熟讀玩味하면實益과趣味가不少하오

第一効驗잇는 살거칠지아니하는것은 구라부洗粉 本店謹製의 구라부구리—무

クラブ美身クリーム

此구라부美身구리무는밋나의美를더하고白粉이잘퍼지는品質第一의살거칠지안코히에걸지안는것으로愉快히되는光榮을蒙하는中이요

皇后宮職御用品

優良한技師에依한製作된優良品

汽車時刻